



시중은행, 중소기업에 설날 특별자금 지원

은행들이 설 전후로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1월 중에 중소기업에 3000억원 한도에서 대출금리를 최고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거나 경쟁력은 있지만 담보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으로, 업체별로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관련 소요자금도 면제해 준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들이 설 자금 수요 대비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3000억원 한도 내에서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최장 3년간 대출되며, 복잡한 대출 절차를 줄이는 한편 영업점장 전결로 최고 3% 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특별자금 형태는 아니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출상품인 '엑스베스트 파트너 대출 3'을 지난 2일 출시했다.

산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 대출 한도액을 지난 해보다 1조33억 원 늘린 6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설 특별자금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 한국씨티, 우리 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이 설 전후로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을 급키로 하고 대출 한도액, 금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 중소기업 정보화에 25억원 지원

한국전력공사(대표 한준호)는 상반기에 25억원을 투자, 30여개 중소기업의 정보화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한전은 중소기업 정보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6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25~30여 중소기업을 선정, 전자자원관리(ERP)·공급망관리(SCM)·제품데이터관리(PDM) 등 정보화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구축사업에 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전은 오는 17일까지 웹사이트(www.kepco.co.kr/jungso/)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전력산업 관련 전기·기계 분야의 중소기업 또는 2003년 1월 이후 한전(자회사 포함) 납품 실적 중소기업으로 조업원 40인 이상, 2005년도 상반기 매출액이 35억원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한전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은 일부 대기업이 지원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과는 달리 정보시스템 구축·컨설팅·교육·기술개발 비용을 절반 이상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은행聯, 중기 워크아웃 자격 확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은행연합회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6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은행대출 50억~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워크아웃을 적극 시행하기로 합의한 지 1년 반만에 50억 원 제한선도 사라졌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최근 중소기업 공동 워크아웃이 지지부진하자 은행연합회에 '여신액 50억원 이상'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국내은행이 신규로 워크아웃을 추진한 중소기업 수는 435개사에 달했다.

이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만기연장, 신규여신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 채무재조정 규모는 1조373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